

# ‘광주인권상’에 홍콩 초우항팅씨

### 천안문 추모 집회 주도 인권변호사...사회정의 사건 다수 처리 국가보안법·대중선동죄로 수감...‘이란교사노동조합’ 특별상

국가의 모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천안문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온 홍콩 인권변호사 초우항팅(鄒幸彤·38)씨가 올해의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5·18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문화상 전국회의장)는 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우항팅씨를 올해의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초우항팅씨는 지난 1989년 발생한 중국 ‘천안문 사건’에 대한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홍콩 민주주의 투쟁을 이어오다 홍콩 정부의 탄압으로 투옥돼 수감중이다.

홍콩에서 나고 자란 초우항팅씨는 지난 2003년 홍콩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 지구물리학으로 박사학위 과정을 밟았다. 이후 홍콩대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인권변호사로 거듭나 투표권이나 각종 시위 등 사회 정의에 관한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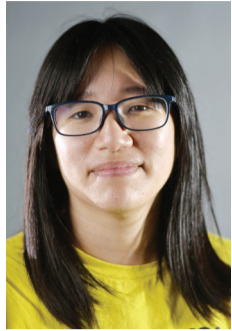
그는 4살 때인 1990년부터 부모님을 따라 천안

문 사건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에 참석하며 국가폭력에 대해 보고 배웠다. 이후 천안문 촛불집회 주최측인 ‘홍콩시민지원에국민주운동연합회’(이하 연합회)에 소속돼 매년 촛불집회에 참석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는 연합회 부주석(부의장) 자리까지 맡아 집회를 주도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홍콩 정부는 탄압의 수위를 높였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으며, 그는 ‘승인되지 않은 집회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아 구금됐다.

또 2021년 6월 SNS에 대중을 선동하는 글을 올렸다는 대중선동 혐의로 징역 15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SNS에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대중집회를 못하게 하니 각자의 자리에서 천안문 사태를 추모하자”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였다.

게다가 2021년 9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제체 전복 선동’ 혐의로 기소됐는데,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징역 10년이 추가될 위기에 처해있다.



초우항팅 변호사

이란교사노조는 지난 2002년 이란 전역의 25개 교원단체를 통합해 설립된 단체로, 최근 ‘히잡 혁명’으로 불리는 이란의 민주화 흐름에 힘입어 교육 현장의 인권유린, 차별·불평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의 자유’를 요구하며 수업 거부, 국회·교육청 앞 시위 등 활동을 이어 왔는데, 이 탓에 지난 2022년 5월 노동절 이후 250여명이 넘는 교사가 체포되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 전국 규모로 이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

시위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이란 쿼, 테헤란, 아르다빌 등 전역에서 여학교를 노린 의문의 ‘독성 가스’ 테러가 발생해 2000여명의 여학생들이 병원으로 실려갔는데도 정부가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 터져나왔다. 이란 정부는 시위 현장에 군대를 배치해 시위를 강제 진압하고 교사들을 체포했다.

문화상 심사위원장은 “초우항팅씨는 인권변호사로서 정부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대우에 끊임없이 저항해왔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홍콩 민중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이란교사노조는 민중 운동을 통해 불평등과 사회양극화, 불안정한 사회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광주인권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 왜곡 전광환 목사 고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2일 오전 광주북부경찰서에 전광환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도 같은 날 오후 광주북부경찰서에 전 목사를 5·18특별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김일 고향’ 고흥 거금도, 국립공원 된다

### 멸종위기종 9종 등 보존가치 인정...이달 말 공식 지정

고흥 거금도가 생태 가치를 인정받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2일 환경부는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거금도 적대봉) 일대 9.475km<sup>2</sup>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편입된다고 밝혔다.

거금도 적대봉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참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새호리기, 큰말뚝가리, 팔색조, 긴꼬리딱새, 흑비둘기, 구렁이)의 서식지인데다, 상록활엽수림과 비자나무·단풍나무의 자생지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은 곳이다.

이번에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면적 중 1.567km<sup>2</sup>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립공원 내에서도 더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다.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야생동물 서식지·도래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높은 완도 구도·매물도·송도, 여수 소평어도, 진도 갈매기섬·상방고도, 신안 솔솔 등 전남 섬 지역 18곳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편입된다.

지리산 밤머리재(경남 산청군 삼장면 흥계리, 금서면 지막리 일원) 1.668km<sup>2</sup>도 지리산국립공원

으로 새로 편입된다. 기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리산과 웅석봉 생태축을 연결하는 곳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지리산 등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먼저 완료된 20개 국립공원 계획을 지난 1일 변경 고시했고, 나머지 다도해해상과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은 5월 말에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면적 확대는 환경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확정되면서 결정됐다.

전국적으로 22개 국립공원에서 가치가 인정된 지역 72.2km<sup>2</sup>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고, 지자체가 공역사업을 위해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요청해 대체면적이 확보된 농경지, 항·포구 등 36.2km<sup>2</sup>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해제된 구역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전국 국립공원 구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36km<sup>2</sup>가 추가되면서, 전체 국립공원 면적은 6726.3km<sup>2</sup>에서 6762.3km<sup>2</sup>로 확대된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구례 지리산 자락 골프장 추진 공익감사 청구

전남지역 환경단체와 구례군 주민들이 지리산 자락에서 이뤄진 축구장 30개 규모의 벌목 허가와 관련,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구례군 주민들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2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에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자락 일대의 벌목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에도 같은 내용의 공익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구례군이 벌채 허가를 낸 지역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겨우 170m 벗어난 지역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21만㎡)을 포함한다”며 “구례군은 생태계 보전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서둘러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구례군은 앞서 지난 2·4월 산동면 일대 21ha 규모의 벌채 허가를 내줬는데, 환경단체 등은 구례군이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04년 지리산골프장 예정 부지였다가 무산된 곳이며, 구례군이 지난 3월 시행사·시공사 등과 골프장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점에서도.

구례군은 이와 관련, 산림자원법상 벌채가 제한된 곳이 아니고, 벌채 후 5년간은 나무를 베기 전후 나무가 자란 상태를 기준으로 환경 평가를 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지수 기자 dok2000@kwangju.co.kr

# 거리 해매던 기저귀 남매, 이웃 도움으로 ‘부모 품에’

### 영암 이주 노동자 자녀들

기저귀 차림에 맨발로 거리를 헤매던 어린 남매가 이웃과 경찰의 도움 덕분에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

2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영암군 삼호읍에서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어린이 2명을 데리고 온다는 상점 주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남매관계로 4살 여아는 숙웃, 2살 남아는 기저귀만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CCTV를 확인했으나 아이들이 어느 집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었고, 아이들과 한국어로 소통도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상인을 대상으로 탐문에 나선 결과, 아이들의 부모를 알고 있다는 상점 주인이 나타났다. 경찰이 부모와 연락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냈다.

아이들의 부모는 캄보디아 출신 이주 노동자 부부, 엄마가 잠시 이웃을 만나러 나간 사이에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 관계자는 “교통사고 등 강력사건 위험에 노출될 뻔한 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내 일처럼 도와준 인근 상점 주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일보** **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 의견을 기다립니다**

**제보대상**

- 예산낭비 사례
- 복구 행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 복구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 제외대상

- 개인 사생활 침해 및 인신공격
- 단순 민원 해결 요청
-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
- 익명 제보 및 기타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부적절한 사안

**제보기간**

- 2023.5.1. ~ 2023.5.31. ※ 감사시기 : 6.13. ~ 6.21.

**제보방법**

- 복구의회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 방문 및 우편 : ☎61187 광주광역시 복구 우치로 77 3층, 의회사무국 의사팀
- 팩스 : 062-526-4997
- ☎문의 : 062-410-8506 ※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광주광역시복구의회**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